

4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687.21 (+107.73)		813.50 (+23.29)
	금리 (연·5년)		환율 (원·달러)
	3.884 (-0.004)		1351.75 (+1.35)

檢 수사에 해외서 여론전… 노조 리스크 확산

삼성전자, 노사관계 점입가경
DX노조, 美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인력 효율화 반대’ 메시지 광고
경찰, 노조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최승호 위원장 등 檢 불구속 송치

삼성전자의 노조 문제가 사내 교섭단체를 넘어 수사기관과 해외까지 번지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다바이스경험(DX) 부문 노조가 뉴욕에서 해외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위원장까지 검찰에 송치되며 노조 리스크가 대외 리스크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인력 효율화에 반대하는 광고를 내걸었다. 15초 분량의 영상에는 “위대한 제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노조가 문제 삼는 것은 인공지능 전환(AI)에 따른 인력 운용이다. 동행노조는 회사가 AX를 추진하면서 업무를 세분화하고 효율을 측정해 필요한 인력을 산정하고 있다며 ‘인력 효율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구체적인 감원 계획을 발표한 사실은 없다.

동행노조의 반발은 지난 5월 임금협약



열흘 만에 생존자 구조

구조대원들이 5일(현지 시간) 네팔에서 구조된 중국인을 이송하고 있다. 구조대는 네팔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력 발전소에서 중국인 한 명을 구조했다고 주네팔 중국 대사관이 밝혔다. /신화·뉴시스

타결 이후에도 지속됐다. 노조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DX 부문이 소외됐으며 반도체를 담당하는 다바이스솔루션(DS) 부문과의 보상 격차 해소를 요구해왔다. 지난달 21일에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경영진과의 소통을 촉구했다.

집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으로 확대된다. 동행노조는 오는 18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동행노조가 대외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초기업노조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은 지난 4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 위원장 등은 지난 3월 총파업 추진

과정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임직원 10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6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9월 누적 수출액 7094억 달러 기록 작년 연간실적 돌파

한국 수출이 중동 정세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악재를 뚫고 단 248일 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 실적을 넘어섰다. 매달 월별 수출 신기록을 다시 쓰며,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5일) 13시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은 709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 연간 수출액(7093억 달러)을 불과 8개월여 만에 돌파한 수치다. 지난해 실적 달성 시점과 비교하면 무려 117일이나 단축됐다.

올해 수출은 1월부터 매달 역대 동월 최고 실적을 잇달아 경신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 6월에는 1020억 달러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수출 역사상 최초로 단일 월 수출 1000억 달러 고지를 밟기도 했다.

산업부, 연간 1조 달러 ‘청신호’

美·中·獨 이어 4번째 달성 전망

반도체 수출 전년비 2.7배 급증

주변기기·석유제품 등 고른 성장

이 같은 수출 대호황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다. 올해 1~8월 반도체 수출액은 281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9.6%(약 2.7배) 급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40.6%까지 확대됐다. 글로벌 AI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인공지능용 메모리 반도체 등의 수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컴퓨터 주변기기(262.2% ↑), 석유제품(40.7% ↑), 무선통신기기(28.1% ↑), 선박(12.4% ↑) 등이 고른 상승세를 보이며 실적을 뒷받침했다.

국가별로는 주요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6.1% 늘어난 145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미국(1274억 달러, 57.0% ↑)과 베트남(632억 달러, 57.7% ↑) 역시 대폭 증가했다. 홍콩(170.7% ↑), 대만(61.3% ↑), 말레이시아(95.4% ↑) 등 아시아권 전반에서도 호조가 이어졌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 중인 중동 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9.8%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한국 경제는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된다. 현재까지 연 수출 1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가 세계에서 미국, 중국, 독일 3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의 위상도 한 단계 격상될 전망이다.

가능성은 높다. 연간 수출 1조 달러까지 남은 금액은 2006억 달러로, 연말까지 남은 약 117일 동안 하루 평균 약 24억 8000만 달러, 월평균 약 756억 달러 달성 시 1조 달러가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



metro

M-커버스토리

실적 상관없이 퇴출… 코스닥 ‘성장 사다리’ 절실

코스닥 기업 ‘옥석’ 가려야

관리종목 상장사 총 46곳 집계
“삼진·하닉처럼 장투종목 없어
투자자들 금세 자금 거둬들여
퇴출 앞서 지원체계 마련해야”

“요즘 코스닥 투자자들의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A 씨(55)는 “코스닥은 도대체 ‘장투’ (장기투자)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이라며 이같이 털어놨다. 코스피는 9월 들어 ‘7천피’ (지수 7000)를 다시 바라보고 있지만 코스닥은 ‘천스닥’ (코스닥 1000)도 요원해 보인다는 것이다. 25년 전 찍은 최고점(2834.40)은 더더욱 같지 않다. 퇴출 공포와 엔비디아·테슬라·스페이스X와 같은 혁신 기업들이 없어서다. <관련기사 3면>

시장 참여자들은 한목소리로 코스닥 시장을 혁신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총 46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업들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된다.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된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는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이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하회하는 ‘동전주’도 대상에 포함된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10월에 첫 상장폐지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 투자자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자영업자인 B씨는 최근 코스닥 종목에 투자했던 주식을 손절해 3000만

원에 눈물을 머금고 전량 매도했다. 그는 “주식 명절을 앞두고 돈이 필요한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대거 주식을 파는 경향이 있어 일단 모두 팔아버렸다”며 “코스닥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믿고 장기투자할 종목이 없다고 본 투자자들이 금세 자금을 거둬들인다”고 말했다. 실제 4월 기준 잠재적 상장폐지 우려 기업이 172곳이나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퇴출 가능성이 있는 곳이 177개(8월 25일 기준)로 유가증권시장의 약 3배에 달했다. 시가총액은 4조6153억원, 소액주주는 216만6832명(보유주식 평가액은 6조4001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퇴출에 앞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먼저 마련하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12일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기업 실적이 아닌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리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재무 상태나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시장의 변동성으로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동전주가 되는 억울한 기업들도 있다”고 짚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세그먼트 제도 시행과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앞서 진입·성장·퇴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코스닥 성장사다리 전환 프로그램’을 먼저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강화 조처를 6개월 미루기로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조국혁신당 “檢정원 지키려 공소청 직제안·검사정원법 꿈수…실망 넘어 경악”
▲나경원 “인사 참사 속대발인데…대통령은佛출국길?” /사진 뉴시스

▲홍준표, 김승원에 “부인 앞에서 청문회 받아야…한동훈, 녹취는 어디서”
▲국힘 진중모, ‘당원권 정지 2년’ 징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동훈, ‘신약 로비’ 의혹 녹취록 추가 공개…김승원 “식약처장 직접 챙겨보라고 할게”
▲輿論동아 “한동훈, 김승원 수사기록 불법으로 받아…공수처에 고발”